

교육과 목회의 정점*

Contact Point between Education and
Pastoring

강용원^{*)}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목차

I. 서론 |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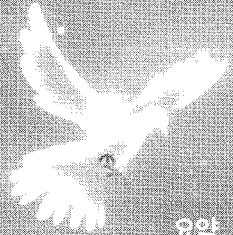
II. 목회의 개념과 요소 | 289

III. 교육목회의 개념과 필요성 | 301

IV. 교육목회의 두 접근 | 310

V.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과의 연계시도 | 317

VI. 나오는 말 | 330



요약

교육과 목회의 접점

이 연구는 교육과 목회의 관련성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 두 개념의 연결과 상호보완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노력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목회의 개념을 살피고, 교육과 목회의 연결을 시도한 한국에서의 ‘교육목회’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였다. 이와같은 논의의 연결선상에서 일반적인 연구의 방향인 ‘교육에서 목회로’ 가는 접근과 이와 반대로 ‘목회에서 교육으로’ 가는 접근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제안된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 안에 내재된 교육과 목회의 상호보완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회성숙, 2) 목회자의 비전과 스타일, 3) 목회팀의 단합된 힘, 4) 교회의 사명실천(예배, 봉사, 친교, 전도, 교육), 5) 기능적 조직과 시스템의 활용, 6) 지역사회를 섬기며 가정을

세우는 일이다.

* 이 글은 2014년 5월 27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0회 해외동포를 위한 교육과 목회 세미나’의 개막강연으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강용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쾰리히 대학교 신학부에서 종교교육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Dr.theol.)를 받았다. 현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이며 신학대학장이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회장과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부회장이며, 총회교사대학의 학장으로 일하고 있다.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방법론』, 『통전적 기독교교육과 상담사역』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요약

Contact Point between Education and Pastoring

주요어

교육, 목회, 교회성장, 교육목회

Abstract

Contact Point between Education and Pastoring

Prof. Dr. Kang Yong-won

This research dealt with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ministry and pastoral ministry in the church. The linking and mutual complement of these two concepts will result in making the church of God grow healthily. First of all, this research examined the concept of pastoring and then summarized the recent discussions in Korea about the so-called 'educational pastoral ministry' that was the result of the effort to link the pastoral ministry and the educational ministry. In this line of discussion, the researcher examined the general approach of 'from educational ministry to pastoral ministry' and also the newly suggested opposite approach of 'from pastoral ministry to educational ministry.'

Next, this research compared and analyzed the elements of healthily growing churches that were suggested by many authors, and drew some important characteristics from them. The key role of the mutual complementarity of pastoring and education in these characteristics was introduced. In conclusion, the researcher derived som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healthily growing churches as the following: 1) Maturing of the church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e Word, 2) Vision and work style of senior pastor, 3) United power (team spirit) of the pastorate team, 4) Implement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church, for example worship, service (mercy ministry), fellowship, evangelism, and education, 5) Making the most of the functional structure and system, 6) Serving the local society and helping to build up the families in the church.

Keywords | Education, Pastoring, Church Growth, Educational Pastoral Ministry

I. 서론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교육과 목회의 관련성에 있다. 이 두 개념의 연결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사역과 목회사역으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노력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목회의 개념을 살피고, 교육의 기본개념에 기초하여 이 두 개념의 연관관계를 소위 ‘교육목회’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요약한 후, 이 논의의 일반적 방향인 ‘교육에서 목회로’ 나가는 접근과 이와 반대로 ‘목회에서 교육으로’ 나가는 접근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연구자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저자의 제안들을 분석 평가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도출해 내하고자 한다.

이 글은 성격상 기존의 연구들을 활용하여 연결짓는 메타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연구자는 이미 교육, 목회, 혹은 교육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을 활용하면서 그것을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조망하고 그 연관관계를 찾아 나가하고자 한다.

II. 목회의 개념과 요소

목회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치는 이미지를 그려준다. 목회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다. 물론 목사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그러나 목회의 초점은 개별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아

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일에 있다. 한문으로 목회(牧會)라는 단어 속에는 목자와 회중의 개념이 함께 들어 있다. 그래서 목회는 목양(牧羊)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목회에 대한 많은 논의들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살피고자 한다.

1. 힐트너(Seward Hiltner)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한 사람은 힐트너이다.¹⁾ 그는 퍼스펙티브(관점)라는 용어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 목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양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목회란 목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른 맥락을 구성해야 하는 바,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요소로 친교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힐트너는 목회를 목양(shepherding), 소통(communicating), 조직(organizing)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²⁾

1) 소통

복음의 소통(communicating of the gospel)은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는 일로, 소통의 핵심은 관계적(relational)인 것이고 그 중심에는 설교가 있다. 이와 관련된 것들로는 가르침과 교리교육(instructing or catechetics), 예배나 예전의 집행(celebrating or worshiping or liturgics), 그리고 교화(edifying)로 표현될 수 있는 회중설교(congregational preaching)가 있다. 복음의 소통의 기능과

1)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목회신학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2) cf.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1958), 69-91. 목양의 핵심 개념은 사람이며(shepherding: person), 소통의 핵심개념은 복음이고(communicating: gospel), 조직의 핵심 개념은 친교이다(organizing: fellowship).

관련된 세 가지 국면을 힐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³⁾

첫째는 학습, 이해, 가르침(learning, understanding, or instructing)의 국면으로 전에 알지 못했거나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깨닫는 것이다.

둘째는 깨달음, 심화, 교화(realizing, deepening, or edifying)의 국면으로 전에 알거나 가지고 있었던 것에 새롭고, 깊고, 넓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는 예전집행, 일깨움, 기념(celebrating, reminding, or commemorating)의 국면으로 공동의 승인(corporate acknowledging)을 통하여 더 깊은 인식으로 나가는 일을 말한다.⁴⁾

2) 조직

친교의 조직(organizing of the fellowship)은 단순한 집합체나 덩어리가 아닌 유기체(organism)를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안에서의 상호관계성이다.⁵⁾ 이 조직은 목양과 소통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목회의 중요 요소이다. 힐트너는 조직의 세 가지 국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는 양육, 먹임, 발달을 위한 도움(nourishing, feeding, or aiding its development)의 국면으로 위협이 최소일 때 유기체의 발달에 조력하는 일이다.

둘째는 안과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들로부터 보호하고 정화하는(protecting or purifying from threats within or without it) 국면으로 위협에 직면할 때 주로 나타난다.

셋째는 여러 기관, 문화, 국가와 같은 다른 조직체들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연관을 맺는(relating it, positively or negatively, to other bodies such as institution, cultures, or states) 국면이다.⁶⁾

3)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181.

4)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182.

5)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198.

6)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201.

3) 목양

힐트너는 전통적인 목양의 분야인 훈련(discipline), 위로(comfort), 교화(edification)를 치유(healing), 지탱(sustaining), 인도(guiding)로 정리하였다.⁷⁾ 이제 연구자는 힐트너의 세 가지 요소에 클랩쉬와 재클(Clebsch & Jaekle)이 제시한 화해(reconciling)를 추가하여 목양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치유(healing)

힐트너는 치유에 대한 형식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방향이나 스케줄 상 손상을 입었던 기능적 온전성(functional wholeness)의 회복이다.”⁸⁾ 또한 그는 치유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생성하는 요인을 네 가지로 이야기한다. 그것은 결함(defect), 침해(invasion), 왜곡(distortion), 그리고 결심(decision)이다.⁹⁾ 또한 치유는 단지 일대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 종교교육, 그룹사역에서도 발생한다. 그가 보여주는 치유의 특징은 분명히 전인적이며 일대일의 사역을 넘어서고 있다.

(2) 지탱(sustaining)

지탱은 ‘겉에 서주는 일’을 강조한다. 어떤 상실이 생겼을 때 그 상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불가능한 상황, 즉 환경이 치유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하도록 지지해 주면서 동시에

7)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64-69. 힐트너는 전통적인 세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목양의 관점을 지시하는 세 용어 가운데서 ‘위로’라는 단어는 배제할 작정이나 그 단어가 가진 의도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다. ‘교화’는 그 뜻이 모호하여 배제하며, ‘훈련(치리)’은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목양과는 다른 개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작정이다.”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65.

8)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89.

9)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91-93.

아직도 남아있는 자원들을 살펴보고 재구성하여 치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죽음을 통한 아픈 상실을 경험하면서 즉각적으로는 기능적 온전성의 회복이 불가능할 때, 목양은 지탱이나 위로나 용기를 주는 형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탱의 사역이 치유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치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¹⁰⁾

클랩쉬와 재클은 지탱의 사역은 네 단계를 거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손실과 과도한 후퇴에 대항하여 물러서지 않고 위치를 고수하도록 돕는 일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지지와 소망의 느낌으로 그들을 감싸 줌으로 그들이 느끼는 비참함의 느낌을 감소시키는 일이다. 세 번째는 강화(consolidation)의 단계로 재정립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구속(redemption)으로 개인들로 하여금 미래를 직면하게 하고 새로운 기초 위에서 다시 성취를 추구하는 지속적인 삶을 정립하게 하는 것이다.¹¹⁾

(3) 인도(guiding)

인도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것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과 결단을

10)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116; L. Aden, “Comfort/Sustaining,” in Rodney J. Hunter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194. 위로가 가진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힐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래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차원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위로(consolation)와 훈계(admonition)의 요소이다. 즉 한편으로는 지지하거나 뒷받침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도록 재촉하는(힘을 행사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다. comfort라는 단어에서 fort는 힘과 관련된 것이다. 연관 단어인 fortitude는 ‘꾸뚝함’이나 ‘불굴의 정신’을 뜻한다. 힐트너는 위로(comfort)의 현대적인 용법이 ‘무엇인가 적극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의미를 잃어버리고, 단지 무엇을 누그러뜨리거나 혹은 편안하게 만드는(making comfortable) 의미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가 지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comfort의 본래적인 의미를 도로 찾는다는 의미에서 입을 분명히 하고 있다.” S.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65, 118.

11) L. Aden, “Comfort/Sustaining,” 194.

선택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결단하는 이가 삶의 의미나 방향에 대한 유용한 지혜를 깨닫게 해준다. 이 과정은 강요나 설득이 아니라 동기를 유발하고 자각의 환경을 조성시켜줌으로 스스로 적합한 결단을 내리도록 돕는 일이다.

인도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 하나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원들로부터 해답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의 고려점이나 자원들과의 직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는 이끌어내는 인도(educative guiding)이며 다른 하나는 유도적 인도(inductive guiding)이다. 이끌어내는 인도는 내부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개인의 방향감각과 자원을 끌어내는 것을 말하며, 유도적 인도는 선형적(a priori)인 원리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인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지시적인 면이 있다는 이유로 무시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족치료, 감수성 훈련, 권면적 상담, 영성지도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4) 화해(reconciling)

화해는 소원해진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화해는 다른 사람의 세계, 운명, 그리고 그 자신과의 조화로우름을 정립하는 것이다. 클랩쉬와 재클은 이것을 하나님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파괴된 관계의 재수립을 추구하는” 목회돌봄의 기능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화해는 가장 전망이 밝은 목회기능으로 여겨진다. 화해는 용서와 훈련을 통하여 작용한다. 용서는 선포와 고백-죄사함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시키고, 훈련은 행동을 검토하며 사람들을 회복된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목양의 요소로 인정되던 것이었지만 힐트너가 억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하였으나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회

복을 위한 화해와 용서의 사역은 목양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¹²⁾

2.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과 목회

예수님의 사역은 목회의 모델로 볼 수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목회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그의 세 가지 사역은 통전적이고 효과적인 목회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마 4:23).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의 성격과 특징을 살피고, 세 가지 사역을 통한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¹³⁾

1) 세 사역의 공통점

예수님의 세 사역의 중요한 공통점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인간구원이었으며 그것은 전인적이며 회복의 속성을 갖는데, 바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인적 치유와 전인적 교육의 속성을 함께 강조하면서 그 구분을 모호하게 하든지, 아니면 한 쪽을 더 강조함으로써 어느 한 사역이 다른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의 표현과 깊이 연관된다. 복음선포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일이며, 치유는 하나님

12) J. R. Burck, “Reconciling,” in Rodney J. Hunter(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1047.

13) 자세한 내용은 강용원, “기독교교육과 치유의 접점,” 『복음과 교육』 13 (2013): 13-42를 참고하라.

나라의 현존을 가지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아적 능력의 행위였다. 이 세 가지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결단하는 행위를 갖게 하는데 기여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 핵심개념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복음선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다.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침의 중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¹⁴⁾ 예수님의 치유는 이미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2) 세 사역의 차이점

예수님의 세 사역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르침의 사역은 깨달음을 촉구하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며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가르침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통한 회개인 것이다. 복음선포 사역은 외침(선포)을 통한 도전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치유사역은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세 가지 사역의 차이점을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첫째,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복음선포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속성을 지닌다.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선언으로만 끝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치유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용면에서도 선포와 가르침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선포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으나, 가르침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진다. “선포사역을 통해 전파하셨고, 가르치는

14) cf. Robert H. Stein, *The Method and Message of Jesus' Teaching*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8), 60-79.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부성,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리고 기독교론으로 서술한다.

사역을 통해서는 훈련시키셨다. 선포사역은 선언하는 일이었고, 가르치는 사역은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선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는 일이었고, 가르침은 믿는 자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도록 세우는 것이었다.”¹⁵⁾

둘째, 사역의 형태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복음선포가 1대 다수의 불특정 다수와 관계 된다면, 치유는 거의가 1:1의 관계성으로 드러난다. 가르침에 있어서는 때로는 무리를, 소집단을 혹은 제자의 집단을 상대로 하여 다양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복음선포는 일방적인 외침의 성격이 강하고, 가르침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로 설명의 방법을 이용하셨지만, 예증, 실물교육 등 다양하다. 치유에서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치료받는 자가 몸에서 체험하게 하신다. 이것은 치료된 사람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의 예증이 되는 것이다.

넷째, 가장 큰 차이는 방향의 문제이다. 쉽게 말해서 복음선포는 일방적인 텍스트(text)의 선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황을 감안한 텍스트’의 취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유는 구체적인 문제인 컨텍스트(context)에서 출발한다. 가르침이 일반적인 원리의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 개인에게 적용되는 방향이라면, 치유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 세 사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웨릴(L. J. Sherrill)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사역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예수님이 복음선포만 하시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 분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할 것과 그 가르침은 말씀의 선포와 복음전파와

15) Roy B. Zuck, *Teaching as Jesus Taught*,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송원준 역(서울: 디오데, 1995), 145.

항상 동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⁶⁾ 또한 “가르침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크게 오해되어 그의 사명까지도 실패로 만들 개연성이 있다.”¹⁷⁾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사역도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예수님의 세 사역은 동일한 목적을 향한 세 형식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석철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각각 고유한 특성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 성취에 독특하게 기여하는 선포사역과 교육사역, 그리고 치유사역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인적인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¹⁸⁾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회는 사역의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는 통전적 목회임을 보게 된다.

3. 교회의 사역(기능)과 목회

교회가 감당할 사역(기능)에 대하여 학자들에 따라서는 교회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상이한 견해와 강조점의 차이로 인해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의 주된 사역은 선포, 봉사, 교제, 예배, 교육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¹⁹⁾ 이 중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다소 최근의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본질적인 사역이다. 이러한 사역들은 모두가 다 본질적이며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런 이유로 교회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각각의 사역은 교회가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이다.²⁰⁾ 그리고 각각의 사역들은 서로 연관됨으로써

16) Lewis Joseph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44), 87-88.

17) Lewis Joseph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89.

18) 이석철, “교육을 통한 치유”, 『치유목회의 기초』(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234-235.

19) 이석철, “교육목회의 성서적 및 신학적 기초”, 『복음과 실천』 16(1993. 9), 242f.

전체적인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

목회가 교회에 속한 회중을 이끌고 사역을 위해 구비시키는 일이라면 목회는 당연히 교회가 감당해야할 기능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목회는 교회가 감당해야할 사역들을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일이며,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이러한 사역에 참여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교회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후론하게 될 교육과 다른 사역들과의 관계는 교육과 목회의 중요한 연결점을 보여줄 것이며, 목회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큰 비중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4. 목회사역, 목회돌봄, 목회상담의 상호관계

여기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목회와 관련된 활동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목회의 성격과 본질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 보려는 의도에서이다.²¹⁾ 일반적으로 목회상담은 목사와 교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한 구조적인 조력의 과정을 지칭한다. 베너(D. Benner)는 목회상담을 규정하면서 목회사역(pastoral ministry) 속에 목회돌봄(pastoral care)이 있으며, 목회상담(pastoral counseling)은 목회돌봄의 한 영역으로 본다. 목회사역에는 설교, 예배인도, 행정, 목회돌봄, 심방 등이 포함된다. 목회돌봄은 목사와 교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목사가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남을 갖게 되는 모든 일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목회상담은 전반적인 목회사역과 목회돌봄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²²⁾

20) D. Aleshire, “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y,” in Bruce P. Power, ed., *Christian Education Handbook* (Nashville: Broadman Press, 1981), 32.

21)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강용원, “목회적 과제로서의 통전적 예배에 관한 구상 - 예배와 목회상담의 접점”, 『복음과 상담』 18(2012. 5): 76-105에서 일부 다룬 바가 있다.

22) David G. Benner, *Strategic Pastoral Counseling: A Short-Term Structured Model*, 이정기

베너의 견해를 약간 수정 보완하면서 연구자는 위의 세 가지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자는 세 개념의 포함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구분을 뚜렷한 선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느슨한 점선으로 포함관계를 그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자는 목회의 세 차원인 목회사역으로부터 목회돌봄으로, 그리고 다시 목회상담으로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원리의 제시나 선포’에서 ‘적용과 확인’으로,
둘째, ‘일대 다수의 집단적인 행위’에서 ‘소집단’(가정심방,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거쳐 ‘일대일의 개인’으로,
셋째, ‘일방통행적 접근’으로부터 중간단계를 거쳐 ‘쌍방적이며 상호이해’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틀 속에서 목회돌봄과 목회상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돌봄은 신자들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되는데, 그것은 통과 의례와 관련된 것(출생, 결혼, 장례)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위기적 문제들(질병, 은퇴, 슬픔, 실패 등)과 연관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상황들은 공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들도 포함된다(입학, 합격, 취직, 세례, 입교 등). 반면에 목회상담의 주제는 해결해야 할 더 구체적인 문제가 초점이 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목회돌봄은 목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관계이나, 목회상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의식한 성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게 된다.

셋째, 베너가 성경사용을 가지고 둘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접근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목회돌봄의 상황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준비되어 있는 보편적인 성경말씀을 가지고 권면, 위로, 충고하

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목회상담에서의 성경사용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목회상담에서 목사는 단순히 상식적 차원에서 내담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 보다 깊은 내담자의 내면적 상황까지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돌봄이 일반적 관심이라면 목회상담은 보다 깊은 상황에 대한 통찰과 공감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넷째, 목회돌봄은 주로 개인적이며 동시에 가족 단위로 접근하지만 목회상담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은 논의로부터 목회에는 더 넓은 맥락적 요소도 있겠으나 그 핵심에는 ‘삶의 적용’, ‘개인에 대한 관심’, ‘쌍방적이며 상호적인 관심과 사랑’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교육목회의 개념과 필요성

1. 교육목회의 개념

1980년대 후반기로부터 ‘교육목회’라는 말이 기독교교육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개념이 기독교교육학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교회의 목회적 상황의 특수한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것은 목회와 교육의 분리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평신도의 일이며, 그 대상이 어린이 임에 비하여, 목회란 목사의 일이며, 그 대상이 어른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목사는 목회를 맡고, 교육은 부교역자나 열정 있는 신자들의 일이라고 생각되

었다. 이런 이유로 교육적 사안은 목사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자주 바뀌는 부교역자의 생각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격을 잃고 임기응변적인 모습을 띄게 된 것이다. 또한 교육에 관심을 가진 목사라도 목회를 설교, 심방, 행정, 상담, 교육 등으로 나눔으로, 교육을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목회는 목사의 교육적 관심과 책임을 촉구할 뿐 아니라, 교육이 목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육적 인식과 원리가 목회를 통제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론하겠지만, 목회의 본질이 개개인의 신자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련시킴으로써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 중만’(엡 4:13)의 성숙한 분량으로 나가게 하는 일이라면, 이미 목회라는 개념 속에는 교육의 요소가 깊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연구자는 교육목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 부연설명 한바 있다. “교육목회란 특수목회나 목회의 다른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참된 본질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목회의 본질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의미를 더욱 인식, 수용, 적용, 개발, 확대해 나가는 탐구와 실천의 태도를 의미한다.”²³⁾

2. 교육목회의 필요성

교육목회의 필요성은 네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1) 교회의 본질로서의 교육

스마트(J. D. Smart)는 “교육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며, 이러한 교육의 기능을

23) 강용원, “한국교회의 교육목회적 대응”,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서울: 기독교, 2004), 191-192; 이 글은 1999년 유성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학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5집에 수록) 교육목회에 관한 이하의 논의는 이 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무시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볼 때 필수 불가결한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나,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교회가 결합이 있는 교회인 것처럼, 교육이 결여된 교회도 결합이 있는 교회이다.”²⁴⁾라고 말하였다.

흔히 쉼바 본문으로 알려진 신명기 6:4-9은 ‘이스라엘의 교육현장’, 혹은 ‘교육명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교육해야 한다는 근원적인 명령을 담고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 즉 종교적 명령과 교육적 명령이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다. 성경을 살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였으며, 또한 교육의 공동체였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전해 주는 도구로 교육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면, 교회는 그대로 신앙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교육의 공동체인 것이다.

구약에서 교육의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같은 명령을 내리신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말씀에는 다섯 개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정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어 하나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전도의 명령으로 취급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교육적인 용어이다. ‘제자를 삼는다’는 동사 외에 이 말씀에는 ‘간다’, ‘세례를 준다’, ‘가르친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분사형이다. 그리고 ‘지키게 한다’는 동사는 부정사이다. 그러므로 이 세 동사들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면서 제자 삼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어떤 이는 가서, 세례 주는 데까지는 전도이고, 그 후에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라고 구분하여 말하는데, 이는 올바른 설명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보다 넓은

24) James D. Smart,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11.

관점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국 ‘제자 삼는’ 일이며, 이것은 교육적 사역이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갱을(K. O. Gangel)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교육지상명령(Great Teaching Commission)”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²⁵⁾

에베소서 4장 11-16절에 의하면 신자의 평생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며,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자들의 ‘훈련과 교육의 도장’이다(엡 4:13-15).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교육적 교회론(padagogical ecclesiology)”이라고 불렀다.²⁶⁾ 또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인 목사를 성경은 교사직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묘사하고 있다(엡 4:11).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이며, 敎會라는 한자의 표현대로 ‘가르치는 모임’이다.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이 교육만은 아니다. 교회는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행 2:41-42).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교회가 그 성격상 가르침과 배움의 연결 고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피면서, 그가 교육을 중시하셨음을 알게 된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즉 가르치심,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병고치심을 말하면서 교육의 사역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강조는 3분의 1의 강조로 끝나는 것이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전도자로 묘사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곳에서 교사로 묘사하였다. 예수님은 자주 랍비나 선생으로 불리었으며, 예수님 자신도 이 호칭을 즐겨위하셨다(요

13:13). 가르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짓는 중요한 용어이며,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선포자로 묘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곳에서 가르치는 자로 묘사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로 불리었으며, 예수님이 공사역에서 가장 주력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기르신 일이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침을 그의 사역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⁷⁾

오늘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적 사역이 이차적인 것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비본질적인 기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²⁸⁾ 교육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마땅히 교육이 존재해야 하며, 교회가 행하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교육적인 성격을 갖으며, 필연적으로 교육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

2) 목사직의 교육적 속성

목사직의 교육적 속성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아야 한다. 이 구절은 목사의 교육적 성격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καὶ αὐτὸς ἔδωκεν τοὺς μὲν ἀποστόλους, τοὺς δὲ προφήτας, τοὺς δὲ εὐαγγελιστάς, τοὺς δὲ ποιμένας καὶ διδασκάλους)로 되어 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교회의 사역자들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앞의 세 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정관사가, ‘목사들’의 앞에서는 반복되고 있으나, ‘교사들’ 앞에서는 생략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성경주석가들은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직분인가, 아니면 두 가지 별개의 직분인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25) Kenneth O. Gangel, “What Christian Education Is,” in R. E. Clark, L. Johnson, and A. K. Sloat, ed.,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for the Future* (Chicago: Moody Press, 1991), 21.

26) M. J. Anthony, “Putting Ministry in Perspective,” in Michael J. Anthony, ed., *Foundations of Ministry: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for a new Generation* (Wheaton: A Bridge Point Book, 1992), 19.

27) cf. Lucien E. Coleman, Jr., *Why the Church must Teach*, 박영철 역, 『교육하는 교회』(서울: 요단출판사, 1986), 25-36.

28) Lucien E. Coleman, Jr., *Why the Church must Teach*, 21f.

바르트(M. Barth)는 두 그룹이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teaching shepherds'라고 했다.²⁹⁾ 하퍼(N. Harper) 역시 이 부분만을 직분의 두 가지 기능으로 보면서 'pastor-teacher'로 번역하였다.³⁰⁾ 그 외에도 파치아(A. G. Patzia)³¹⁾나 헨드릭슨(W. Hendricksen)³²⁾도 이 둘을 하나의 직분이나 집단으로 보는 견해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pastors and doctors)는 하나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크리소스톰과 어거스틴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는 바울 사도가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그리고 같은 순서인 것처럼 차별이 없이 말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찬동한다. 나는 또 교사(doctor)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목사에게 속한 것임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두 직분을 혼동하게 하지는 않는다."³³⁾ 최근에 링컨(A. T. Lincoln)은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도행전 13:1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들'로 불리어진 사람들이 어떤 리더십을 수행했음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교회 지도자들의 주된 역할은 목회적 가르침이었다(참고, 딤후 3:2; 5:17; 딤후 1:9). 그러나 두 사역이 언제나 같은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 두 기능은 서로 겹치는 기능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의 모든 목사들이 교사인 반면에, 모든 교사들이 동시에 목사는 아닌 것이다. 이 두 기능이 특별한 지역적 상황 안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수행되는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에 의존했다. 그러므로 하나의 정관사는 지역교회

29) Marcus Barth, *Ephesians*, 2 vols. (New York: Doubleday, 1974), 438f.

30) Norman E. Harper, *Making Disciples: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Christian Studies Center, 1981), 80, 117.

31) Arthur G. Patzia, *Ephesians, Colossians, Philemo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84), 241ff.

32) William Hendricksen, *Ephesians* (London: Banner of Truth, 1972), 197.

33) John Calvin,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Grand Rapids: W. B. Eerdmans, 1965), 179.

에서 작용하는 이 두 형태의 사역자 사이의 기능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다."³⁴⁾

이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연구자는 정관사의 생략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직분으로 보기보다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두 개의 직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따라가든지 목회와 교육의 긴밀성과 목사직의 교육적 속성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보여진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목사를 신학자와 동시에 교육자로 파악해 왔다. 목사(牧師)라는 한자의 표현은 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목사는 목회자이며, 또한 교사이다.

3) 다른 사역과의 관련에서 본 교육사역의 특수성

이제 연구자는 교육사역의 특이성을 다른 사역과의 관계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다른 사역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제반 사역들이 잘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얼샤이어(D. Aleshir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과제도 우위에 있지 않은 반면에, 각각의 과제는 그 독특한 기여를 한다. 교육의 독특한 과제는 다른 모든 과제들을 지원해 준다는 데 있다. 사람들이 성숙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기 전에, 그들은 예배가 어떤 것이며 신자들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해야 할지를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은 선교의 과제와 선교의 방법, 그리고 선교의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욱 더 전도의 노력에 참여하게 된다. 사람들은 기독교교육에 노출됨을 통하여 성장한다. 교육은 또한 교회의 친교적 삶을

34) A. T. Lincoln, *Ephesians* (Waco: Word Books, 1990), 250.

도와준다. 사람들은 함께 배우면서, 그들의 생각들과 짐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새로운 이해들을 발견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 교회의 가장 최고의 과제로 보여서는 안 되지만, 교육은 교회의 과제들의 모든 목록에 적극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은 정보를 주며, 교회의 모든 목적들을 지원한다.”³⁵⁾

이와 동시에 모든 사역들은 이미 그 안에 교육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그 사역의 수행 자체가 교육적이라는 점이다. “기독교교육의 프로그램은 본질상 교육적이며, 모든 신자들의 요구에 충족하며, 성경적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들의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⁶⁾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나 선교행위는 전하는 자의 신앙을 굳게 해 준다. 즉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신앙교육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조리 있게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신학하는 일이다. 전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실패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절하지 아니한다. 봉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돕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실천되고 실습되며,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다. 봉사를 통하여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되는 것이며, 삶 그 자체가 되어 움직이는 것임을 체험하게 된다. 교제는 그 자체가 교육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는 서로를 닮으며 배우고, 교제하면서 배운다. 신자들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나누며 격려하며 고무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찬양의 행위이지만, 참여자의 신앙적 성숙을 기대한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응답한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세계를 배우며, 자아와 그의 책임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신자의 영적변화가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예배의 결과로 기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가 교육 그 자체는 아니라 해도,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회개와 결단을 동반하는 삶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예배의 체험은 곧 배움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의 논의를 요약하면, 교육사역은 다른 사역을 위해서(for) 존재하며, 또한 다른 사역을 통해서(of, through) 성취되는 사역이다. 따라서 교육사역은 단순히 교회가 가진 하나의 사역이기보다는 오히려 사역포괄적 성격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연구자는 믿는다. 이러한 생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한 실례는 헤리스(M. Harris)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헤리스는 교회의 삶을 이끄는 커리큘럼의 구성을 디다케에 국한시키지 않고,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코이노니아를 포함하였다.³⁷⁾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분명한 것은 교육사역의 중요성과 교육사역의 포괄적 성격이다. 교회의 교육사역은 다른 사역과는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교육사역을 뚜렷한 경계선을 가지고 다른 사역들과 구분하면서 교회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역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교회의 교육사역은 모든 사역 중에서 핵심적인 사역일 뿐 아니라, 모든 사역들의 기초가 되고, 모든 사역들을 통합시켜 주고,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4) 목회에 내재된 교육

이미 앞에서 교육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교회의 모든 행위는 결국 교육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목사의 목회행위는

35) D. Aleshire, “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y,” 32.

36) D. A. Freese, “The Church’s Educational Ministry,” in R. E. Clark, L. Johnson, and A. K. Sloat, ed.,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 for the Future* (Chicago: Moody Press, 1991), 399.

37) Ma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교육적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교육사역의 본질과 목사직의 교육적 속성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을 기초로 목회에 내재된 교육적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기능에서 교육은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다른 사역들을 통해서 성취됨을 통하여 교육사역의 특이한 양식을 본 바가 있다. 둘째,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서 교육은 이미 그의 사역을 지배하는 주된 통제개념이 되었음을 보았다. 셋째, 힐트너의 목회신학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또한 자명해 진다. 소통에 포함된 학습, 깨달음, 예전집행의 개념은 직간접적으로 교육과 연결되며, 조직에서 나타나는 양육, 목양에서 나타나는 인도 개념은 철저히 교육적 개념이다.

IV. 교육목회의 두 접근

1. '교육적 목회'의 구상

이것은 교육목회를 보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석철의 책 제목인 『교육으로 목회를 본다』는 것은 이런 접근을 표현해 주는 말이다.³⁸⁾ 연구자는 이미 목회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다음 몇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³⁹⁾

첫째로 목회자가 교육적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적 의식이란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의 인식, 교육의 현상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목회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어야 한다.

둘째, 교육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과 구조성을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교육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형성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교육의 목적지향성과 의도성을 들 수 있다. 모든 활동이 목적을 중시하는 것 이상으로 교육은 목적지향적인 행위이다.

넷째, 교육의 관계적 속성(상호성)을 들 수 있다. 교육은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며, 이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상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다. 교육만큼이나 현실과 상황의 충분한 이해를 강조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교육은 상황 관련성(Situationsbezogenheit)을 강조한다. 교육의 이러한 속성은 목회의 제반 영역에서 효과 있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교육목회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에 부단히 복음을 관련지어 나가는 일이다. 정일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목회가 목회다워지려면 그 지혜는 교육에서 얻어야 한다. 교육은 목회자 자신을 배우게 할 뿐 아니라 양들을 양육시키는 그 자체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육과 목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한 사건의 두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복음 그 자체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복음은 교육이란 수단을 통하여 인간의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생산할 뿐 아니라 목회사역 자체를 변화시켜 목회다운 목회를 가능케 한다.”⁴⁰⁾

이러한 교육목회는 목회의 본질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교육과 목회의 이분화를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담아 나가는 총체적 목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목회는 한 두 가지의 특기를 살리는 목회여서는 안 되며, 교육적 목회만이 전인적이며 창조적인 목회가 될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이전의 글에서 교육목회의 세 가지 방향을 말한 바 있다. 첫째는

38) 이석철, 『교육으로 목회를 본다』(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2).

39) 강용원, “한국교회의 교육목회적 대응”, 200-202.

40) 정일웅, 『교육목회학』(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3), 113.

교회 전체의 기능으로서의 교회교육의 갱신을 추구하는 일이며, 둘째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중심으로 교육목회적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역에는 예배, 선포, 교제, 봉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역들은 그 자체가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켜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역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는 목회의 다양한 영역인 설교, 심방, 상담, 의식 등과 교육을 연결시켜 보는 작업이다.⁴¹⁾

2. ‘목회적 교육’의 접근

최근에 교육목회에 접근하는 다른 암시가 나타나고 있다. 김형태는 ‘교육(적) 목회’라는 용어 대신에 ‘목회적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⁴²⁾ 이 용어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이고 새로운 관점과 의미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용어로 보인다. 김형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교육적 목회’는 목회를 교육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교육을 목회의 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목회적 교육’은 목회가 곧 교육이라는 전제로 교육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 보통 목회교육(pastoral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목회를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육을 말한다.⁴³⁾ 이렇게 보면 김형태는 새로운 조작적 의미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를 가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목회가 단순히 교육을 수단으로 본다는 것은 부분적인 시각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교육의 원리와 관점을 목회에 적용하려는 것은 분명하나

교육목회에서 교육과 목회의 관계는 수단과 목적 그 이상이다.

둘째, 목회가 곧 교육이라면 목회와 교육의 구분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물론 목회의 행위가 교육적 요소를 깊이 담고 있음은 이미 밝힌바 있으나, 목회가 바로 교육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은 옳지 않다. 김형태는 ‘목회적 교육’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⁴⁴⁾ 1) 목회적 교육은 기독교교육의 원형이다. 2) 목회적 교육은 목회자의 사명이다. 3) 목회적 교육은 경건생활의 훈련이다. 4) 목회적 교육은 성서적 신앙의 향상이다. 이렇게 보면 목회적 교육을 기독교교육으로 바꾸어도 별다른 의미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목회적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임창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즉 현존하는 교육목회의 정의들은 주로 목회에 교육의 관점이나 원리를 적용해 가는 사역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목회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교육목회는 목회학의 한 분야라는 것이다. 임창호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교육목회는 교육과 목회라는 두 분야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개념이다. 나아가서 이 두 개념이 서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뜻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든 위의 두 정의는 교육(기독교교육)의 원리를 목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교육목회는 자연스럽게 목회학의 한 분야로 이해된다. 그러나 반대로, 교육목회가 목회의 원리를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교육목회는 기독교교육학의 한 분야로 이해되어질 것이다... 전자는 교육적 목회로서, 목회가 주가 되며, 후자는 교육의 목회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교육이 주가 된다. 목회의 궁극적 목적이 영적성장(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기까지)의 돌봄이며 기독교교육학의 목적도 이와 같다고 할 때, 목적론적으로는 문제가

41) 강용원, “한국교회의 교육목회적 대응”, 208.

42) 김형태, 『목회적 신학』(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6), 335.

43) James D. Whitehead & Evelyn Eaton Whitehead, *Method in Ministry*, 허일찬, 오성춘 역, 『목회방법론』(서울: 장로교출판사, 1994), 245ff.

44) 김형태, 『목회적 신학』, 335-339.

없을 수 있겠지만, 학문영역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교육학의 경우 교육사회학, 교육경영학, 교육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지만 모두 교육학의 한 분야로 취급한다. 교육목회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교육목회학이 교육의 원리를 목회에 적용한다는(목회학적) 입장보다, 목회의 원리를 교육에 적용한다(기독교교육학적)고 하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교육목회는 기독교교육학의 한 분야로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⁴⁵⁾

임창호는 교육목회학을 기독교교육학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과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은 목회적 마인드로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을 여기서 찾으면서 기독교교육이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목회적 마인드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목회학은 교육의 목회적 적용이 아니라 목회의 교육에로의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교회가 1980년대 후반기부터 부흥과 성장이 침체되고 정지된 것에 대해서 많은 원인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1960년대 이후 대학에 기독교교육학과가 설치되고 이론이 더욱 발달되었는데, 주지하다시피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교육과 기독교교육은 후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종전까지 목회적 마인드로 교육하던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발전된 교육학적 이론과 방법에 의존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목회적 마인드

를 점점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은 일명 스킬이라고도 정의한다. 그러나 목회는 결코 스킬이 될 수가 없다. 목회는 생명을 바쳐 양을 지키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교육과 기독교교육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다분히, 목사와 교사들, 혹은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심정적으로 목회적이기 보다, 지나치게 교육적이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교육목회학은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목회적 적용이 아니라, 목회의 교육에로의 적용이어야 할 것이다.”⁴⁶⁾

연구자는 여기에 몇 가지 고려해야할 점을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육목회를 목회의 영역에 대한 교육의 적용이라는 말은 옳은 생각이지만, 교육목회를 목회의 한 분야로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교육목회는 목회의 다른 형태나 목회의 다른 분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목회의 본질을 살리는 제대로 된 목회를 추구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목회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 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교육목회를 목회학자들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목회학의 분야에 속한다는 것은 목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체가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기독교교육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목회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 분야는 대단히 선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길이야말로 기독교교육이 잘 성취될 수 있는 하나의 길로 믿기 때문이다.

셋째, 김형태는 목회의 목적을 교육으로, 아니 목회가 곧 교육이라는 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비해서, 임창호는 목회적 열정과 뜨거움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목회적 교육은

45) 임창호, “기독교교육과 교육목회”, 강용원 (편), 『기독교교육학개론』(서울: 생명의 양식, 2007), 241-242.

46) 임창호, “기독교교육과 교육목회”, 243-244.

단지 목회적 열정과 뜨거움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고려점에도 불구하고 임창호의 제안은 새로운 측면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이제는 목회적 측면에서 교육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열정과 뜨거움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에 불과하다. 목회적 마인드를 가르침에 적용하는 일은 그 이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이미 헨리 나웬(Henri J. M. Nouwen)은 그의 *Creative Ministry*에서 교육에 대해서 다루면서 폭력적 교육(violent education)과 구속적 교육(redemptive education)을 논한 바 있다. 문자 그대로 오늘의 교육이 폭력적 교육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폭력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병을 일으킨다. 그러나 구속적 교육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하는 교육이다. 나웬은 폭력적 교육을 구성하는 것으로 경쟁적(competitive)이고, 일방적(unilateral)이고, 인간을 소외시키는(alienating)교육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구속적 교육은 일깨우는(evocative) 것이며, 양방향(bilateral)적이며, 실현시키는(actualizing) 교육의 형태가 된다고 한다.⁴⁷⁾ 이와 같이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 상황과 요구의 이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공감적인 상호작용의 강조는 기독교교육에서 목회(치유)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한 예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깊이 다룰 수 없지만, 목회적 가르침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를 거론한다면 진단, 필요와 요구에 대한 관심, 치료, 돌봄, 열정과 뜨거움, 사랑, 도전, 적용 등의 요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미 다른 연구에서 치유의 중요한 요소인 진단, 치료, 돌봄이 고려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 예시를 제시한바 있다.⁴⁸⁾

47) Henri Nouwen, *Creative Ministry*, 『새 시대의 사목』, 성염역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79), 20-30.

48) cf. 강용원, “기독교교육과 치유의 접점”, 13-42.

V.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과의 연계시도

이미 많은 목회자나 학자들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다. 물론 교회성장에 대한 논의는 방법론에 있어서나 신학적 경향성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동시에 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성장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거부감, 기계론적 처방과 같은 제안들로 인하여 이런 접근을 도외시 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이를 분석 평가하면서 취사선택한다면 좋은 제안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여기서는 이미 제안된 중요한 몇몇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교육과 목회의 접점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효과적인(effective) 또는 건강한(healthy)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제안된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다음 다섯 가지 영역들을 분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특별히 이 기준은 앞에서 논의한 목회와 교육의 특성들이 함께 관여되는 영역을 추출한 것이다.

첫째,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요소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기초가 강조되거나, 성령님의 역사, 기도와 말씀을 통한 교회의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요소들은 성경적인 교회관과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교육과 목회를 위한 공동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둘째, 교회의 목회자 및 목회팀과 관련된 요소이다. 목회자의 철학과 믿음, 목회자의 스타일과 열정, 그리고 목사를 중심으로한 목회팀과 관련된 요소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되, 특별히 교역자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이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협력과 일치 속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신다. 목회자는 교육자이며

동시에 목회자이기에 이 두 요소는 함께 작용한다.

셋째, 교회의 기능과 관련된 요소이다.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교회의 중요한 기능인 예배, 전도, 봉사, 친교, 교육 등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손’이다. 실제로 교회의 이러한 기능들은 교회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 있다. 물론 이 기능을 단순히 행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이 기능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이 부분이야말로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교육과 목회가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할 영역이다.

넷째, 교회의 조직과 관련된 요소이다. 각 기능들의 연관, 부서의 조직, 시스템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에 조직이나 시스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흐트러진 것들을 정돈하고 질서 잡는 것임을 알기에 이러한 요소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조직은 원래 교육에서 강조하는 요소이나, 목회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섯째, 내외적 결속과 관련된 요소이다. 여기서 내적 결속은 교회 내에서의 친교와 사랑의 관계를, 외적 결속은 지역사회와의 친교와 관심을 나타낸다. 교회는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며 세상 속에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칭찬받기를 원하시며, 교회의 외적 결속은 내적 결속의 확장이며 결과라고 믿는다. 내적 결속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협력의 관계를 강조하는 목회적 요소에서 드러나며, 외적 결속은 보다 넓은 상황을 강조하는 교육적 요소를 반영한다.

이제 조금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균형 있게 묘사한 NCD의 제안을 살피고, 다른 연구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의 자연적 교회성장

슈바르츠에 의하면 건강한 교회에는 8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⁴⁹⁾ 첫째, 건강한 교회의 지도력은 사람중심적이고 관계중심적이고 팀사역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 적절한 일꾼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권한부여의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이라 할 수 있다.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사역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와 권위를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 지도자는 평신도들을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목표나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조력자’ 정도로만 여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라밋형의 권위주의를 거꾸로 뒤집어서 리더가 교인들을 섬기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잠재력을 개발하여 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⁵⁰⁾

둘째,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역한다(gift oriented ministry). 그리고 사역자들은 자신의 은사와 일치하는 사역을 할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는 것이다.”⁵¹⁾

셋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는 열정적 영성(passionate spirituality)이 살아 있다. 열정적 영성의 표지는 성도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헌신과 믿음의

49) cf. Christian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외역, 『자연적 교회성장』 (서울: NCD, 2001), 22-37.

50) Christian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22.

51) Christian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24.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무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 ‘전통의 고수’만으로는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기도와 말씀인데, 이 일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된 ‘영감 있는 경험’이다.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⁵²⁾ 석정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식어버린 영성은 구원을 받긴 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열정적 영성이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고 변화된 삶을 살며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말한다.”⁵³⁾

넷째, 건강한 교회에는 기능적 구조(functional structure)가 살아 있다.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조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하다. 이 주제는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나 생명과 조직 사이에는 나눌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창조하는 행위는 형태를 만드는 일이요 모양을 갖추는 일이다.⁵⁴⁾ 기능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비전, 핵심가치, 전략을 공유하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⁵⁵⁾

다섯째, 건강한 교회는 영감 있는 예배(inspiring worship)가 드러진다. 슈바르츠는 구도자 예배가 교회성장의 원리는 아니라고 말한다. 영감이 넘치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 말의 근원인 인스피라티오(inspiratio)라는 단어의 뜻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영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단지 관념적인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이 진정으로 역사할 때에 예배의 분위기는 물론 예배 절차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영감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게 된다.”⁵⁶⁾ 영감 있는 예배는 성도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기에 예배는 강요되지 않고 자발적인 것이 된다.

여섯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는 전인적 소그룹(wholistic small group)이 살아 있다. 소그룹은 단순히 모여서 성경공부 하는 모임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나누며 적용시키는 그룹을 말한다. 전인적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배우는 자연스러운 장소가 되고, 따라서 제자도를 실현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자도의 의미는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배경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제자도란 삶을 나누는 것이지 추상적 개념을 반복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다.”⁵⁷⁾

일곱째, 건강한 교회는 필요중심적 전도(need based evangelism)를 하는 교회이다. 슈바르츠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들에게 알맞는 사역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필요중심적’ 접근방식은 불신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함으로 불가피하게 불신자들에게 부담과 압력을 느끼게 하는 접근과는 다른 것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관계를 전도를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⁵⁸⁾

여덟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관계(loving relationship)이다. 성장하는 교회는 교회의 안팎의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중시한다. “진실하고 실제적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식과도 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전도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기를

52) Christian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26-27.

53) 석정문, 『당신의 교회를 그린 오션으로 가게 하라』(서울: NCD, 2006), 68.

54) Christian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28-29.

55) 석정문, 『당신의 교회를 그린 오션으로 가게 하라』, 70.

56) Christian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31.

57) Christian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32.

58) Christian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34-35.

원한다.”⁵⁹⁾

이상과 같은 슈바르츠의 제안은 교회의 본질, 기능, 조직, 목회자 요소들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긍정적 제안을 준다. 내외적 결속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의 관련은 필요중심적 전도의 제안을 제외하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슈바르츠의 성장 요인은 어느 정도 질적이며 양적 성장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외적 성장과 내적 성숙 사이의 불균형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성장원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방법론에 치우치기 쉬운 성장론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교회성장론은 주로 경험적인 연구에 기초하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 검토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가 결여됨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인간의 인위적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 다른 제안들

1) 조지 바너(George Barna)

조지 바너는 그의 책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특징을 쓰고 있다.⁶⁰⁾ 그의 책의 제목은 ‘매우 효과적인 교회(highly effective church)’로 되어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효과적인 교회의 7가지 습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유능한 지도자
- (2) 효과적인 교회 조직
- (3) 의미 있는 성도의 교제

59) Christian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36.

60) George Barna, *The Habits of Highly Effective Churches*, 조계광 역,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 -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전략』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4) 참된 예배
- (5) 전략적인 복음전도
- (6) 조직적인 신학과 교리교육
- (7) 칭지기 정신
- (8) 사회봉사
- (9) 가정사역

조지 바너의 목록은 목회자와 조직의 요소를 앞에 두고 있으며, 교회의 기능과 관련된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으며, 교회의 내외적 결속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요소는 결여되어 있다. 조직적인 교리교육의 강조와 가정사역에 대한 고려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된다.

2) 릭 워렌(Rick Warren)

새들백교회의 담임목사인 릭 워렌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8가지 활동(8 Acts of a Healthy, Growing Church)”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그는 초대교회의 성장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은 8가지 특징을 이야기 하고 있다.⁶¹⁾

- (1)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한다(행 1:4).
- (2) 따뜻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행 2:42-44).
- (3) 소그룹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
- (4)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확대되어야 한다(행 4:24).
- (5) 기도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행 4:31).
- (6) 예수님과 같은 관대함을 갖는 것이다(행 4:32).

61)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7589>

- (7) 성도 한명 한명을 사역에 동원해야 한다(행 6:6-7).
- (8)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행 8).

릭 워렌의 요소들은 보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성령과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교적 비전을 강조한다. 교회의 기능에서는 교제, 봉사, 전도가 강조되고 있다. 목회자 요소, 조직의 요소와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은 결여되어 있다.

3) 마크 데버(Mark Dever)

미국의 캐피톨 힐 침례교회(Capitol Hill Baptist Church)의 목사이며 남침례 교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마크 데버는 그의 책에서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성을 논하고 있다.⁶²⁾ 그는 건강한 교회의 본질적(essential) 특징을 3가지로, 중요한(important) 특징을 6가지로 말한다.

- 교회의 본질적 특징

- (1) 강해설교(expositional preaching)
- (2)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 (3) 복음의 성경적 이해(A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Good News)

- 교회의 중요한 특징

- (4) 회심의 성경적 이해(A Biblical understanding of conversion)
- (5) 복음전도의 성경적 이해(A Biblical understanding of evangelism)
- (6) 교회구성원의 성경적 이해(A Biblical understanding of membership)
- (7) 성경적 교회치리(Biblical church discipline)

62) Mark Dever, *What is a Healthy Church - 9 Marks of a Healthy Church* (Weaton: Crossway Books, 2007).

- (8) 성경적 제자도와 성장(Biblical discipleship and growth)
- (9) 성경적 교회 지도자(Biblical church leadership)

그의 요소에는 철저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생각이 반영되고 있으며, 침례 교의 신학적 배경이 또한 드러난다. 그는 강해설교와 성경신학을 기초로 한 성경적 기초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회심, 복음전도, 교회 회원의 의무, 성도들의 교육과 치리를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과 관련하여 그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으며, 목회자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성경적 교회지도자’를 언급하고 있다. 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예배, 교육, 전도를 다루고 있으며, 봉사적 차원은 제자도의 이름으로 취급하고 있다. 개혁교회의 바른 교회의 표지 중의 하나인 치리를 강조한 점은 특이하나 성례는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강조는 극히 미미하다. 교회의 구조나 조직의 문제는 리더십을 세우는 일 외에는 약하다. 교회의 내외적 결속도 역시 매우 미약하다.

4) 밥 러셀(Bob Russell)

밥 러셀은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Southeast Christian Church)의 담임으로 1962년 5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2003년 23,000명의 멤버십을 가진 교회로 성장시킨 탁월한 목사이다. 그의 10가지 교회 원리는 *When God builds a church*라는 책에 나타나는데,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교회성장에 대한 러셀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첫째, 교회성장은 단순히 교인 수 늘리기에 있지 않기에 교회성장을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축복이다.

셋째, 대형교회 (mega churches)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는 양 도둑질 (stealing sheep)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무조건 대형교회로 만드

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교회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어야 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 회심성장(conversion growth)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이동성장(transfer growth)을 선호해서는 안 된다 것이다. 러셀 목사는 동력적인 교회가 되는 10가지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⁶³⁾

- (1) 진리를 믿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교회이다(truth).
- (2)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다(worship).
- (3) 리더십이 구비된 교회이다(leadership).
- (4) 모든 스텝들이 우수성과 탁월성을 구비한 교회이다(excellence)
- (5) 모험적 믿음을 가진 교회이다(faith).
- (6) 서로의 일치와 융화를 가진 교회이다(harmony).
- (7)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이다(participation).
- (8) 성도들 간에 교제권이 형성된 교회이다(fellowship).
- (9) 물질의 청지기 의식을 가진 교회이다(stewardship).
- (10) 전도를 최고의 사명으로 인식하는 교회이다(evangelism).

러셀은 진리와 모험적 믿음을 강조(교회의 본질 요소)하고 있으며, 지도자 요소와 교회의 기능 - 예배, 전도, 교제, 봉사, 가르침 - 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 다만 조직과 관련된 것은 생략되고 있으며, 교회의 외적 결속력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5) 톰 레이너(Thom S. Rainer)

목회상담자이며 남침례회 라이프웨이 리서치 대표인 톰 레이너는 다음

13가지 요소를 제안한다.⁶⁴⁾

- (1) 기도는 교회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 (2) 비전을 가진 목회자의 지도력이다.
- (3) 평신도들이 목회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다.
- (4) 교회개척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이다.
- (5) 전도에 힘쓰는 일이다.
- (6)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들의 응답이지만 비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접착점이다.
- (7) 교회는 사람들을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가야한다.
- (8)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역점을 둔다.
- (9) 기획과 목표설정은 교회성장에 유익할 수 있다.
- (10) 물질적 시설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기여하거나 손상을 준다.
- (11) 새 교인을 우정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 동화시키거나, 표류하는 교인을 활동적인 교인으로 만드는 일이다.
- (12) 소그룹은 더 많은 목양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 (13) 능력전도가 문제시되기는 하지만, 능력전도를 통해 수반되는 교회성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외견 요소의 수가 많고 질서가 없어 보이며, 교회의 기능에 상대적인 강조점이 있어 방법론적인 교회성장론의 인상이 짙다. 특히 전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어 인상적이다. 그것은 교회개척, 찾아가는 전도,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역점을 두는 일, 새 신자의 동화전략 등이다. 기도를 통한 본질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으며, 비전을 가진 목회자의 지도력이 앞부분에서

63) Bob Russell, *When God Builds a Church - 10 Principles for Growing a Dynamic Church* (New York: Howard Books, 2000).

64) cf. Thom S. Rainer, *The Book of Church Growth* (B & H Publishing Group, 1993).

강조되고 있으나, 교회의 기능은 전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직이나 내외적 결속도 제외되고 있다.

3. 강용원 & 이현철

강용원, 이현철은 부산에 있는 7개 교회를 대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여 7가지 중요한 요인을 찾아낸 일이 있다.⁶⁵⁾ 이 연구는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 부교역자, 장로 및 성도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일곱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뜨거운 예배, 영감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였다.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그들의 핵심가치였으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둘째, 목회자의 철학과 믿음, 그리고 소명이 중요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목회자들의 과도한 업무와 부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환경에 의해 절망하거나 탈진하기 보다는 그들의 목회철학과 믿음, 그리고 소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담임목사의 부교역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흥미롭게도 성장하는 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은 신뢰를 기초로 부교역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임과위

먼트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부교역자들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꾀하고 있었다. 담임교역자의 부교역자에 대한 임과위먼트는 그들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형성시켜주고 있었다. 이러한 신뢰의 관계는 부교역자로 하여금 교회조직 안에서 담임교역자의 리더십에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고 있었으며, 부교역자가 자기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다. 연구과정에서 담임교역자의 부교역자에 대한 믿음이 부교역자의 채용을 부교역자들에게 맡기는 교회도 있었다.

넷째, 단합된 리더들의 힘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성장의 핵심요소로 목회자들을 포함한 리더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별히 단합과 일치를 강조였다. 실제로 ‘교회들이 시험 들고, 갈라서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는 리더들의 갈등이 아닌 가’라는 연구참여자의 고백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새 신자들이 갈등하여 교회가 갈라지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더 그룹들의 단합과 일치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사역들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활발한 양육 및 새신자 프로그램이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성도들의 양육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으로 목장활동, 제자훈련, 독서훈련, 캠프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소그룹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새신자 관리와 프로그램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특징에 맞는 전략과 지역사회 내의 교회의 위상이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교회가 속한 지역의 배경과 특징,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교회성장에 있어서 효과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위상과 소문이 좋다는 것이었다. 부흥하는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였고, 지역사회와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공생관계’가 있는

65) 강용원, 이현철,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3(2011): 151-191; 이 연구의 연구 참여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추천을 받은 총 12개의 교회 중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고, 연구와 관련된 진행에 동의한 7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 교회의 교단은 고신, 합동, 통합, 침례, 성결(기성) 등이며, 교회의 규모는 약 600-7,000명, 소재지는 부산지역, 교회 역사는 17년에서 65년 사이로 다양하다.

교회였다. 단순히 아동센터를 개소하고, 복지단체를 교회가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참되게 섬기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다가오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곱째, 세련된 조직과 환경, 그리고 독특한 매력을 가진 교회였다.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이러한 조직지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높았으며, 그것이 세련된 시스템과 시설적 환경을 통해 지원되고 표현됨으로써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동기를 자극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이나 환경이 조금 떨어져도 그 교회가 가진 독특한 매력이 있다면 성도들은 만족을 얻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의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장요인을 찾아내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두드러지는 공통특징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목회자와 목회팀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으며, 교회조직,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교회기능의 측면에서는 예배와 양육이 강조되고 있다. 앞에서 검토한 슈바르츠의 제안과 다른 많은 제안들을 비교 분석하고 앞에서 논의한 목회와 교육의 중요한 접점을 감안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측면을 보완하면 건강한 교회성장의 충분한 요인모델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VI. 나오는 말

완벽한 교육도 완벽한 목회도 없는 것이며, 또한 교육의 속성과 목회의 속성은 많은 부분에서 공유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과 목회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의 차이를 통하여 상호보완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교육이 목표지향성 및 의도성, 조직과 체계성, 그리고 보다 폭넓은 상황의 고려,

가르침의 요소를 강조한다면, 목회는 관계성, 적용, 돌봄과 치유를 강조하고, 보다 개별화된 개인의 상황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교육과 목회의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라 하더라도, 본문과 현장(text와 context), 원리와 적용, 다수와 개인, 가르침과 돌봄, 일방통행과 상호통행, 하나님의 은혜와 전략구사 등의 균형 잡힌 추구는 우리가 바라는 교육목회의 이상에 접근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분류의 기준을 가지고 제안된 사례들과 연구자가 행한 질적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앞에서 세운 다섯 가지 가설적인 요소 - 본질요소, 목회자요소, 기능요소, 조직요소, 내외적 결속 - 가 상당한 의미를 주는 건강한 성장의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 안에는 교육과 목회의 상호보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자는 다음 6가지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연구자의 질적연구에서는 본질요소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고, (2-3) 목회자 요소와 목회팀 요소를 분리하고, (4) 기능적 요소(예배, 전도, 봉사, 친교, 가르침), (5) 조직과 시스템 요소를 살리고, (6) 내외적 결속에서 내적인 결속을 교회의 기능인 교제로 넘기면서 지역사회와 가정을 강조하는 것이다.⁶⁶⁾ 이렇게 하면 여섯 가지 요소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의 다섯 기능을 요소로 사용하면 10가지 요소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회성숙
- 2) 목회자의 비전과 스타일(사람중심, 소통중심, 관계중심)
- 3) 목회 팀의 단합된 힘

66) 가정은 앞에서 조지 바너가 제시한 바 있는데, 가정이야말로 미래의 목회가 더 깊고 진지하게 다룰 영역임이 감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용찬,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는 목회가 필요합니다.”, 『목회와 신학』 191 (2005): 78-83.

4) 온전한 교회의 사명 실천

- (1)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감 있는 예배
 - (2) 적용력 있는 설교와 가르침
 - (3) 은사활용의 참여와 봉사
 - (4)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들
 - (5) 관계에 기반을 둔 필요 중심의 전도
- 5) 견실한 조직과 시스템 활용
- 6) 지역사회를 섬기며 가정을 세우는 일

참고문헌

- 강용원, “기독교교육과 치유의 접점”, 『복음과 교육』 13 (2013): 13-42.
- 강용원,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기독한교, 2004.
- 강용원 (편), 『기독교교육학개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 강용원, “목회적 과제로서의 통전적 예배에 관한 구상 - 예배와 목회상담의 접점”, 『복음과 상담』 18 (2012. 5): 76-105.
- 강용원, “한국교회의 교육목회적 대응”,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기독한교, 2004: 187-274.
- 강용원, 이현철,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3 (2011): 151-191.
- 김형태, 『목회적 신학』,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6.
- 노용찬,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는 목회가 필요합니다.”, 『목회와 신학』 191 (2005): 78-83.
- 석정문, 『당신의 교회를 그린 오션으로 가게 하라』, 서울: NCD, 2006.
- 이석철, “교육목회의 성서적 및 신학적 기초”, 『복음과 실천』 16 (1993. 9): 227-247.
- 이석철, “교육을 통한 치유”, 『치유목회의 기초』,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197-238.
- 이석철, 『교육으로 목회를 본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2.
- 임창호, “기독교교육과 교육목회”, 강용원 (편), 『기독교교육학개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223-245.
- 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3.
- Aden, L. “Comfort/Sustaining,” in Rodney J. Hunter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193-195.
- Aleshire, D. “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y,” in Bruce P. Power, ed., *Christian*

- Education Handbook*, Nashville: Broadman Press, 1981: 25-45.
- Anthony, M. J. "Putting Ministry in Perspective", in Michael J. Anthony, ed., *Foundations of Ministry: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for a new Generation*, Wheaton: A Bridge Point Book, 1992: 13-23.
- Barna, George. *The Habits of Highly Effective Churches*, 조계광 역,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 -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전략』,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Barth, Marcus. *Ephesians*, 2 vols., New York: Doubleday, 1974.
- Berner, David G. *Strategic Pastoral Counseling: A Short-Term Structured Model*, 이정기 역, 『전략적 목회상담』, 서울: 예영미디어, 2001.
- Burck, J. R. "Reconciling," in Rodney J. Hunter(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1047-1048.
- Calvin, John.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Grand Rapids: W. B. Eerdmans, 1965.
- Coleman, Lucien E., Jr., *Why the Church must Teach*, 박영철 역, 『교육하는 교회』, 서울: 요단출판사, 1986.
- Dever, Mark. *What is a Healthy Church - 9 Marks of a Healthy Church*, Weaton: Crossway Books, 2007.
- Freese, D. A. "The Church's Educational Ministry," in R. E. Clark, L. Johnson, and A. K. Sloat, ed.,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 for the Future*, Chicago: Moody Press, 1991: 395-410.
- Gangel, Kenneth O. "What Christian Education Is," in R. E. Clark, L. Johnson, and A. K. Sloat, ed.,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for the Future*, Chicago: Moody Press, 1991: 13-29.
- Harper, Norman E. *Making Disciples: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Christian Studies Center, 1981.
-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 Hendrickson, William. *Ephesians*, London: Banner of Truth, 1972.
- Hiltner, S.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목회신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 Lincoln, A. T. *Ephesians*, Waco: Word Books, 1990.
- Nouwen, Henri. *Creative Ministry*, 『새 시대의 사목』, 성염 역,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79.
- Patzia, Arthur G. *Ephesians, Colossians, Philemo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84.
- Rainer, Thom S. *The Book of Church Growth*, B & H Publishing Group, 1993.
- Russell, Bob. *When God Builds a Church - 10 Principles for Growing a Dynamic Church*, New York: Howard Books, 2000.
- Sherrill, Lewis Joseph.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44.
- Schwarz, Christian A.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외 역, 『자연적 교회성장』, 서울: NCD, 2001.
- Smart, James D.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 Stein, Robert H. *The Method and Message of Jesus' Teaching*,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8.
- Whitehead, James D. & Whitehead, Evelyn Eaton. *Method in Ministry*, 허일찬, 오성춘 역, 『목회방법론』,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4.
- Zuck, Roy B. *Teaching as Jesus Taught*,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송원준 역, 서울: 디모테, 1995.